독서 활동지

지금 이 순간

최현진 글, 한아름 그림



마루비 어린이 문학 25번째 작품인 최현진 작가의 『지금 이 순간』은 작가의 세 번째 출간작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란 왜 누군가에게는 쉬운 것이며 누군가는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작가는 말이라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도착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평생이 걸려도 말할 수 없었던 '순가 할머니'와 '칼 할아버지'를 통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관계의 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각자 남다른 삶을 살아온 여덟 살 아이들이 만나, 말함으로써 전해지는 마음과 차마 말하지 못해도 읽어지는 마음의 소리가 따뜻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독서 활동지 ① 읽기 전 상상하기

1. 책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2. 책 표지 그림을 보고, 두 아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고, 글로 써 보세요.

---

3. 이 책의 차례를 훑어보고, 어떤 내용일지 미리 상상해 보세요.

독서 활동지 ② 이야기 짚어보기

1. 책을 읽고, 책 내용에 맞게 네모 칸을 채워 보세요.

① 할머니의 아빠는 술에 취해 할머니 이름을 이순자에서 □□□ 로 신고했어요.

②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은 지금이가 말하는 것을 보고 학교 가서도 혀 짧은 소리를 내면 □□□이 될 수도 있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③ 나성이 할아버지의 한국 이름은 □□□ , 미국 이름은 □ 이에요.

④ 할머니는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 자격증을 땄어요.

⑤ 순가 할머니는 우리가 꼭 얼굴을 보지 않아도 □□□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2. 지금이는 말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운 친구예요. 발음이 정확히 안 되는 지금이는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

3. 지금이가 순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10살의 순가 할머니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 준 것, 아파트 단지에서 나성이를 처음 만난 곳에서도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초성 퀴즈를 맞혀 보세요.

ㅈ	ㅍㅍ	ㄱ

4. 지금이는 10살 순가 할머니를 만나 모래사장에 써 놓은 '이순가' 이름을 보고 할머니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어요. 지금이가 새로 지어준 할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또 새 이름을 지어주며 지금이가 할머니에게 전한 말은 무엇인가요?

• 지금이가 새로 지어준 이름:

• 지금이가 할머니에게 전한 말:

---

5. 이 책에는 말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나성이의 할아버지 이름 '칼'도 이름 외에 날카로운 도구를 뜻하는 단어기도 하지요. 본문을 보면 '네'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온 '네'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6. 칼 할아버지는 18살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은 닷새 후, 미국행 선박에 몸을 실었지요. 그 일은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한 마디는 무엇인가요?

• 사건(그 일) :

•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말 :

---

7. 지금이는 나성이 집에서 숨바꼭질하다가 칼 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돼요. 칼 할아버지는 지금이와 나성이의 대화를 듣고 순가 할머니를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이었나요?

---

8. 다음을 읽고,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혀 보세요.

① 순가 할머니는 동이 되려다 만 돌을, 즉 똥돌을 어마어마한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순가 할머니의 아빠는 이 똥돌도 속을 잘 들여다보면 동이 들어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의 아빠는 그것을 ( )이라고 했지요.
② 공방에서는 미국으로 특별 연수를 갈 기술자를 뽑았고, 그중에는 여성 세공사 이순가가 있었어요. 결국 똥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순가는 보석 세공사까지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할머니의 아빠가 말한 ( )을 본 것이지요.

9. 1985년, 36살이 된 이순가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으로 박도검을 찾으러 간 이순가는 박도검이 이름을 '칼'로 바꾼 것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10. 지금이는 할머니의 유골함이 있는 곳에 가서 할머니에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인가요?

독서 활동지 ③ 읽고 생각하기

1. 이 책에는 '말'이 어려운 인물들이 등장해요. 초등학생인 지금이부터 어른인 할아버지까지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말이 어렵지요. 이 책에 나오는 말이 어려운 인물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은 왜 말이 어려운지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이름	말이 어려운 이유
(예) 박나성	미국에서 태어나 살다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다.

2. 지금이는 칼 할아버지의 첫사랑이 순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어요. 말이 어려운 지금이는 결국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사실을 전달하지요.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였나요?

---

3. 지금이는 자기가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슬피 울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지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다음으로 미룬 적이 있나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며 물음에 답해 보세요.

• 지금 해야 할 말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 말(혹은 다음으로 미루고 하지 못한 말) :

• 못하고 있는 이유(혹은 미룬 이유) :

---

4. 순가 할머니는 하나가 빠진 자리에는 꼭 하나가 채워진다고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순가 할머니의 말씀처럼 하나가 빠진 자리에는 하나가 채워져 관계는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빠진 자리에 어떤 하나가 채워졌는지 써 보세요.

빠진 것	채워진 것
(예) 이순자에서 이순가로 이름이 잘못 신고됨	할머니의 아빠는 미안한 마음에 순가 할머니에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 줌.

5. 나성이와 지금이는 '등정민'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반가운 마음에 나성이와 지금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다투어 새로운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지요. 그리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환영해 주는 일이라고요. 이것의 말의 힘일 거예요. 짧은 말이지만, 혹은 투박한 말이지만, 내게 힘이 되었던 말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 말들을 적어 보세요.

"너도 팔 살?"
"우이도 여더리야!"
나성이와 지금이는 앞다투어 말했다. 정확히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환영해 주는 일이었다. - 본문 107쪽

•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 말들:

---

6. 오지금, 박나성, 등정민 세 친구는 칼 할아버지와 함께 나의 이야기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는 "나의 이순가 책", 나성이는 "내가 살았던 바다 책", 정민이는 "나의 남다른 책"이지요. 나도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책 제목이 적힌 표지와 줄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 나의 책 표지

• 나의 책 줄거리

독서 활동지 ④ 깊이 생각하기

1.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 :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

---

2. 말은 누군가에게는 쉽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워요. 나에게 '말'은 어떤가요? 나는 말이 쉬운지 어려운지 생각해 보고, 나에게 '말'은 어떤 의미인지 적어 보세요.

---

3. 한 사람의 사랑은 당장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흘리지 않은 눈물도 모두 포함하지요.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느낀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

4. 지금 이 순간 반짝반짝 빛나는 인연들이 있나요? 지금 내 곁에 다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독서 활동지 ⑤ 읽을거리

카르페 디엠, 지금을 살아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진정한 스승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끔 하는 영화예요.
1859년에 창립된 미국의 명문 웰튼 아카데미의 새 학기 개강식. 이 학교 출신인 존 키팅 선생님이 새 영어 교사로 부임합니다. 첫 시간부터 키팅 선생님은 "카르페 디엠, 현실을 살아라, 내일은 지금의 오늘"을 외치며 파격적인 수업을 합니다. 이에 학생 닐은 키팅 선생님을 캡틴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닐과 그의 친구들은 엄격한 학교 규율을 어기고 서클에 참여하면서 키팅 선생님을 통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학교는 학생들이 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술을 단지 허황된 꿈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 키팅 선생님은, 예술은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교육하고, 아이들 역시 이를 완전히 흡수합니다.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동굴에서 시를 읊고 시를 쓰며 어울려 놀지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죽은 시인을 살려내며 각자가 시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라고 말하는 존 키팅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봐야 하는지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아이, 사랑을 찾아가는 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아이,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는 아이 등 다양한 인물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들 모두 '죽은 시인의 사회' 구성원입니다. 존 키팅 선생님은 이들이 기존의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만, 아이들을 선동했다는 죄를 쓰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아이들은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며 떠나는 키링 선생님에 존경을 표하지요.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내일은 지금의 오늘이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을 바꿔라"라고 말한 존 키팅 선생님의 말을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644